

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강사*	학번	
파견국가	필리핀	파견도시	수빅
파견대학	필리핀대학마닐라(UPM)	기간	2016. 6. 25(토) ~ 7. 23(토)

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마닐라에 위치했고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</p> <p>오래된 명문대학이라 시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았으나, 전체적인 분위기와 수업은 상당히 흡족스러웠습니다.</p> <p>해당 대학 학생들과의 수업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.</p>
수업	<p>수업은 말하기, 듣기, 어법 등 균형이 맞도록 이루어졌습니다.</p> <p>선생님들도 항상 학생들에게 맞춰주도록 노력하셔서 한달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힘들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.</p> <p>과제 또한 그날 한 수업내용을 잘 숙지하도록 내주셔서 어렵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.</p>
Activity	<p>별도로 진행 되었다기 보단, 수업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해지려고 부족한 실력이나마 영어를 내뱉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</p> <p>한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영어가 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, 평범한 한달로는 얻을 수 없는 영어로 하는 대화에 경험은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합니다.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필리핀 선생님들께 들은 말로는 필리핀의 계절은 3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.</p> <p>hot, hotter, hottest</p> <p>덥고, 더 덥고, 제일 덥다</p> <p>이 말이 무색하지 않을만큼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덥고 그만큼 습했습니다.</p> <p>점점 익숙해지긴 했으나 아무래도 폭폭씨는 날씨엔 애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.</p>
안전	<p>처음엔 주변사람들의 말을 듣고 치안에 대한 걱정은 많이 했으나, 직접 가보니 몸소 나서서 시비를 걸지 않는 이상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</p> <p>다만 저는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바람에 이곳저곳에 다녔는데, 외진 곳이나 북적이는 시장가에 갈 때는 귀중품의 관리를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.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) 홈스테이 () 외부 숙소(o) 기타()</p> <p>SLC라는 어학원에서 생활했습니다.</p> <p>큰 문제라고 생각될 만한 것은 없었으나 위에 기재했듯이 개미는 조금 처리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() 홈스테이 () 외부식당 (O)기타()</p> <p>어학원 내에서 주는 밥을 먹기도 했지만 주로 밖에 나가 많이 사먹은 것 같습니다.</p> <p>물론 어학원 밥도 필리핀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한식을 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.</p> <p>다만 필리핀까지 와서 한식만 먹기는 아깝다고 생각되어 밖에 나가 먹은 것이지, 맛이 없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.</p>
교통	<p>밖에 나갈때는 FB라는 일종의 대중교통을 이용했고, 놓치면 조금 기다리긴 해야했으나 200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어 애용했던 것 같습니다.</p> <p>다만 밤 늦게까지는 운행하지 않아 택시도 많이 탔습니다.</p> <p>택시가격은 싸다고 보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,여행자보험,유학허가 증,교재비,전기세,시설관리비, 공항세	766,000	출국 전 사전 납부
나가서 놀면서 쓴 것	400,000	
합계	1,166,000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많이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 100달러 내지 200달러면 충분하지만,
최대한 나가서 많이 보고 많이 먹고 많이 놀 것이라면
결코 충분하지않습니다. 오히려 부족합니다.
보다 풍족하게, 즐길 것 모두 즐기려면 400달러 내지 500달러를 환전해 와도 괜찮다고
생각합니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순천향대학교 학생들, 어학원 선생님들, 함께 공부했던 타국의 친구들, 가드 분들,
그냥 좋았다고 생각하며 마치고엔 너무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합니다.
4주가 짧다고 느꼈지만, 8주, 12주를 머물러도 소감은 항상 아쉽다는 것 밖엔 떠오르지
않을 것 같습니다.

이번 필리핀 어학연수가 생애 첫 해외경험인데, 아마 평생 잊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즐
긴 것 같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
<p>요트 타고 나가 놀았던 바다입니다. 어찌나 깨끗한지 수심이 5M가 넘는데도 바닥이 흰히 보일정도입니다.</p>	<p>필리핀은 특히나 하늘이 예뻐습니다. 카마얀 비치에 놀러가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도중, 예쁜 석양이 있어 찍어보았습니다.</p>
	
<p>필리핀 독립영웅, 호세 리잘이 수감되었던 감옥, 산티아고 요새입니다. 그 웅장했던 문 앞에서 함께 갔던 형들과 찍은 사진입니다. 점프샷을 찍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맞질 않았나 봅니다.</p>	<p>역시 요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이번에도 하늘은 이쁘지만 바다와 경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찍어보았습니다. 제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으로 사용중입니다.</p>



필리핀 그룹수업은 분반으로
진행되었는데,
저희 반의 단체사진입니다.
역시 산티아고 요새에서 영상을 찍던 도중
다 함께 찍어보자는 누나의 말씀에
한자리에 모였습니다.



저희가 만든 광고와 뮤직비디오 영상으로
2위를 차지했습니다.
상을 받았고 선생님들과, 조원들과 함께
찍은 사진입니다.
상장은 버리지 않고 보물처럼
보관해두고있습니다.